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삼갈 [사사기 3:31]

설교자: 레이니어 노퍼 (Reinier Noppers)

31 에훗의 후에 아낏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육백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한 구절이 그의 인생 전체의 삶을 말해줍니다. '31 에훗의 후에 아낏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육백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사사기 3:31). 마지막 사사에 관한 잔혹한 이야기들이 세세하게 기록되었지만 여기에는 최소한의 내용만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모든 사실들은 다 여기 있습니다. 사사의 이름: 삼갈. 가나안 사람의 이름입니다. 아낏의 아들이며 가나안의 성과 전생의 신입니다. 삼갈은 기껏해야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가족에게 속한 것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가나안 가족입니다! '6 아낏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도다' (사사기 5:6).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일 순위 적이며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을 제련해 사용했습니다. '19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사사기 1:19). 잘 훈련된 군대가 땅을 정찰했을 것입니다. 그에 비해 삼갈의 무기는 황소를 모는 막대기였고 그 당시 반란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은 무장이 해제되어 있었습니다. '19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20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쟁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21 곧 그들이 쟁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뎠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사무엘상 13:19-21). 황소 모는 막대기는 2.4-3미터 길이의 단단한 나무 막대기이며 한쪽 끝에 황소를 찌르는 청동이나 금속 스파이크가 달려 있고 반대쪽 끝에는 쟁기 청소용 칼날이 달려 있습니다. 삼갈은 육체적으로 건장한 소몰이꾼이었습니다. 이 둘의 전쟁 결과, 블레셋 사람 600명이 죽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종류와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가능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의 배경과 상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웃니엘은 강한 언약의 가족이었고 왼손잡이 에훗은 어떤 면에서 장애인이었으며 삼갈의 가족은 불경건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부적합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에 대한 획일화된 정의란 것도 없습니다.**

사실 진짜 질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할 것이란 사실을 신뢰합니까?** 모방할 영웅적인 사사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위대한 업적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둘 수 없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완전히 통제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자기 백성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원수들을 그분의 십자가로 이끌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감히 구하거나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주시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29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니 30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31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29-31). 이사야 40:31에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새롭게 될 것이란 이 말은 문자 그대로 힘의 맞교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그분의 강함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무 약했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조적을 통해 그분의 위대한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 분은 누군가를 조용히 훈련시키시고 잠잠히 준비시키신 후 그 분은 그를 사용하십니다." [허드슨 테일러]<sup>1)</sup>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볼 때 우리 모두는 그분을 섬길

자격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사용하실 것인지 여부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질문은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란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믿을 것인지 여부입니다. 우리는 아마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훗과 같은 교활한 암살자를 사용하셨습니까?”, “왜 황소 모는 막대기와 같은 이상한 무기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비참한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이런 물음들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구지 대답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이 최선인지 아시리라고 신뢰할 순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십니다!** 누가 예수님과 같은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아기로 태어나시고, 죄인으로 선고받으시고, 죽음의 저주를 받으시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 문제는 삼갈의 삶이 한 문장으로 설명된다는 점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교도였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것은 그분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고 또 계속해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시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고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이와 같이 눈먼 사람도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요한복음 9:30). 여러분은 이해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믿어야 합니까? 모든 대답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방식대로 일을 하셔야만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분의 방식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까?

1) 허드슨 테일러-제임스 허드슨 테일러(중국어: 戴德生, 병음: dài dé shēng, 1832년 5월 21일 ~ 1905년 6월 3일)는 영국 침례교 기독교 선교사로 중국 내륙 선교부(CIM, 현재 OMF International)의 창립자입니다. 테일러는 중국에서 54년을 보냈습니다. 그가 시작한 협회는 800명 이상의 선교사를 중국으로 데려오는 책임을 맡아 125개 학교를 설립했으며 20,000명을 기독교인으로 개종시켰을 뿐 아니라 총 499명 이상의 현지 도우미와 함께 18개 주에서 300개 이상의 사역지를 설립했습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Hudson\\_Taylor](https://en.wikipedia.org/wiki/Hudson_Taylor))